

#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대하여

— 特히 地名 接尾辭를 中心으로 —

金 洪 植

## I

人類는 일찍이 그 生活이 始作되면서부터, 그 生活 터전이 되는 땅(地)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歷史 以前 時代까지 遡及하여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地名이 지어지는 데는 여러가지 事情에 依해서 命名되는 것이니, 어떠한 地名도 決코 無意味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自然地理的 關係와 또는 文化史的 諸 關係 等に 根據해서 命名되는 것이 普通인 것이다.

이와 같이 地名은 自然地理的, 文化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過去의 文化 發達의 자취를 잘 傳하여 주는 우리 祖上이 남겨 놓은 貴重한 文化 遺産인 것이다. 即 地名에는 命名 當時의 自然的 및 人文的 環境을 示唆하여 주는 化石과도 같은 것이어서, 地名은 歷史學, 地理學, 經濟學, 民俗學 等の 研究에도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 文化科學의 하나인 것이다.

特히 地名과 言語와는 大端히 密接한 關係에 있어, 마치 脣齒之間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니, 地名은 곧 言語로 命名되는 까닭이다. 特히 어느 地方에 있어서 方言과 地名의 兩者間에는 相互間 매우 비슷한 性質을 지니고 있는 反面 獨自的인 個性도 지니고 있다.

地名 中에도 그 名稱이 變遷되는 것도 적지않기는하나 그것은 全体로 볼 때 極히 少數이며, 오히려 原型으로 오늘날까지 傳해지는 것이 許多하다. 即 地名에는 方言보다도 固着性이 強하여 民族 固有語의 底層이 比較的 外來語의 侵蝕을 받음이 없이 保存되어 있으리라는 點도 또한 期待되는 바 있다. 따라서 方言의 研究에 있어서도 地名의 活用은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濟州島(以下 '本島'라 稱함)는 陸地部 諸 地方에 比해서 比較的 豐富하고 特異한 地名이 保有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어느 意味에서는 地名의 寶庫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本

島가 지녀온 文化的 自然地理的 環境의 特性에 緣由함이라고 할 것이다.

本是 地名은 人類 生活의 시작과 함께 지어졌을 것이니, 그것은 文字 以前 時代부터며, 純粹한 固有語로서 命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後世에 漢字가 傳來 使用하게 됨에 따라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漸次 漢字名으로 代替되어 나갔으니, 저 三國史記 地理志의 地名 變更의 事例 등에서 보아 잘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地名에서 보면 많은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漢字名에 희생이 되어 消滅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一部 地名에서는 固有名과 漢字名의 雙型으로 竝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全羅北道의 ‘裡里’를 지금도 ‘숨리’라고 稱하고 있음이 그 한 例이다.

本島 地名은 根源의으로 그 大部分이 固有名詞로 命名되어 呼稱되어 왔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漢字名 地名이 漸次 固有地名勢를 壓倒하기에 이르러 將次는 傳來의 固有地名은 完全히 消滅될 時期가 到來할 것임은 必至의 事實로 보아진다. 그것은 漢字名 地名이 國家公認 地名이란 優位性으로 傳播力이 강한 反面, 固有語로서의 地名은 俗名으로 轉落 傳播에 優位性을 빼앗기고 다만 個個 鄉土人들만의 愛着을 받으며, 命脈을 維持해 오고 있는 實情인 까닭이다.

이와 같은 實態는 現地 調査를 나갔을 때도 實感하는 일인데, 地名의 물음에 대하여 大概 젊은 世代나 所謂 識者然하는 層에서는 漢字名으로 應答 附會하려 드는 境遇가 許多하다. 그러나 地名의 解釋에 있어서 漢字의 使用 以前에 된 固有地名을 漢字의 知識을 가지고 說明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 地名勢는 將次 漸漸 盛하여 갈 것이며, 相對的으로 固有地名은 漸次 消滅하게 될 運命에 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라져 가는 固有地名을 調査 發掘 採集하여 記錄하여 두는 일이 時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本稿에서는 本島의 各種 地名을 調査 採集 記述하고 分析 分類하여, 比較 考察하는 一環의 作業으로, 우선 本島의 地名接尾辭中 그 一部를 對象으로 하여, 그 命名의 基盤 및 背景과, 또 言語學的 側面에서도 方言의 研究에 있어서 地名의 活用은 大端히 重要하므로, 이 地名接尾辭의 形態, 意味, 語源 等の 考察을 通하여 本島 方言 研究의 一端에 活用을 하여 보려는 것이다.

## II

### 1. 가 롬

「가름」이란 濟州島方言(以下 ‘方言’이라 稱함)은 部落, 洞里를 通稱하는 特異한 方言 語彙로, 그 語源 乃至 起源에 대해서는 明瞭치 않다. 여기 그 方言 語例를 들어 본다.

앞가름	뒷가름	웃가름
알가름	동가름	섯가름
가름밭	가름길	큰가름
새가름	묵은가름	죽은가름
첫난가름	(濟州市 奉蓋洞)	
마로넷가름	(濟州市 吾羅洞)	
뱅뒷가름	(舊左面 坪垆里)	

以上 語例에서 볼 때 이 「가름」 語辭는 接尾辭란 一般의 範疇에서는 벗어난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이 語辭가 方言에서 主로 地名과 關聯되어 特色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地名特殊型으로 보고 地名接尾辭로 取扱하였으니 一般 接尾辭의 概念과는 그 類가 다름을 말하여 둔다.

위 語例에서 볼 때, 「가름」은 分明 部落, 村落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 「가름」으로 呼稱되는 部落의 規模와 性格에 대해서 보면, 「가름」은 比較的 小規模의 聚落 單位를 指稱함이 一般的이다. 그리고 聚落 構成員의 成分은 元來는 同姓 氏族員이 核心이 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聚落이 形成되는 過程을 생각하여 볼 때, 처음에는 一家 乃至 不過 몇몇의 氏族이 모여사는 家戶의 小集團에서 出發하여, 이것이 漸次 擴大 發展되어, 마침내 氏族 中心의 한 村落을 形成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것을 方言에서 「가름」이라 呼稱하여 왔다.

다음으로 「가름」 語辭의 語源에 대해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은 方言 語彙 「갈르다」(分)란 動詞의 語幹 「갈르」에 名詞形成 接尾辭 「口」音이 接尾되어 名詞化하는 過程에서 第一音節 末音 「리」音이 脫落되어 形成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造語論의으로도 動詞에서 名詞形을 形成할 때는 「語幹+m」의 形成 方式을 取하는 國語 一般의인 法則으로 보아 妥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가름」이 어째서 部落의 뜻을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明瞭치 않다.

다음으로 文獻과 關聯하여 考察하여 보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等に 古地名 乃至 國名으로 나오는 「加羅, 加良, 駕洛, 加耶, 伽耶…」 등이 있으니 이것은 모다 「가르, 갈」의 漢字 借記로 보며, 이 「가르, 갈」이 方言 「가름」과도 連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卽 方言 「가름」은 이 「가르, 갈」에 다만 「口」音이 接尾되어 形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加羅」의 語源은 무엇일까? 「加羅」가 方言 「가름」과 關聯이 있는 것이라면 이 「加羅」의 語源 및 由來는 바로 方言 「가름」의 語源을 푸는 關鍵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梁柱東博士는 「加耶, 駕洛」는 모다 「가르, 갈」의 音訓借로 「分, 歧」의 義로 보았으며, 特히 洛東江 下流 分歧 地點에 있으므로 이 稱號를 얻은 것이라고 하였으며<sup>1)</sup> 또 河野六郎氏는

1) 梁柱東, 「古歌研究」(서울: 博文出版社, 1954), p. 349.

4 는 문 집

「加羅」를 「kArA(마르)」로 보고 元來「마르」는 江(特히 洛東江)을 指稱하는 말에서부터 나중에는 「浦邊」을 뜻하게 되었으며 三國史記에 加羅諸國을 「浦上七國」이라 함도 이 「마르」를 義譯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兩氏는 다 같이 「加羅」를 「가르, 마르」로 보고 語源의 見解에 對해서는 多少 差異가 있으나 「加羅」는 洛東江 下流 分岐 地帶 浦邊의 地名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르」로 呼稱되던 地名이 漸次 擴大 發展되어 國家를 形成하게 되자 나중에는 이 「加羅」가 國名으로까지 된 것이라 할 것이며, 當時는 國家라고 해도 아주 적은 氏族 單位의 部落 程度에 不過했을 것이다.

以上 文獻上 資料와 關聯지어 볼 때 方言의 「가름」은 이 「加羅」에서부터 由來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렇다면 「加羅」系 言語가 일찌기 本島에도 流入되었으며, 本島 方言 形成에 많은 影響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다음에 比較言語學的 見地에서 볼 때 이 [ka-ra]語辭는 Altai系 語에서부터 起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니, 오늘날 滿洲語, 蒙古語, 土耳其語 等에서도 同源의 語彙들을 찾아 볼 수 있다.

Hala	(部落, 國, 一族)	滿洲語
halan	(同族)	蒙古語
kala	(村落)	Ostjak語
xlaa	(一族, 姓)	Goldi語 Oroci語

比較言語學的으로 볼 때 滿洲語의 [H]音은 國語의 [K]音과 對應 關係에 있으므로 [Hala]는 바로 國語의 [Kala]에 對應된다고 하겠으며, 이것은 또 國語의 古地名 乃至 國名인 「加羅」와 關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Hala]는 滿洲語에서 一族 部落의 義로서 같은 [Hala]內에서는 婚姻도 禁止된다고 한다.

또 이 「kala」系 語는 日本에도 分布되어 있음을 日本學者<sup>3)</sup>도 主張하고 있어 이 語辭는 일찌기 韓半島를 거쳐 本島 및 日本까지 浸透된 것으로 推測된다.

以上 方言 「가름」에 대해서 方言的 考察과 文獻上 또는 隣近 同系語와의 比較的 觀點에서 볼 때, 方言 「가름」은 일찌기 Altai系 語에서 起源되었으며, 그 語義는 元來 一族, 氏族을 意味하였으나 그 氏族의 集團體 即 村落, 部落을 뜻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氏族 乃至 部族으로 形成된 國名으로까지 쓰이게 된 것이라고 推測된다.

2)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서울: 東都書籍, 1945), p. 88.

3) 大野晉, 「日本語の起源」(東京: 岩波書店, 1974), p. 136.

## 2. ~드르

다음에 「~드르」型 地名 接尾辭를 들 수가 있으니, 이 「~드르」型 地名의 地形的 特徵은 元來 野原 地帶였으리라 생각된다.

方言에서는 아직도 自立名詞로서 「드르」語辭가 殘存되어 있으니, 그 語意는 大體로 「野原, 郊外」의 뜻으로 쓰인다.

- 옷드르 (中山村)           ○ 난드르 (郊外)
- 드르밭 (郊外에 있는 田)
- 드르쇠 (들소, 放牧牛)

위와 같은 語例에서 볼 수 있는 方言 「드르」는, 15世紀 文獻語 「드르」와 比較하여 語形, 語意가 共히 合致되는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겠다.

- 드르헤 龍이 싸호아 <龍歌: 69>
- 뫼고리어나 뫼 드르히어나 <釋譜: 一九・43>
- 뫼눈과 마뫼 어르메 드르히 서늘하니 <杜詩: 四・4>
- 드르교(郊) 드르(坪) <訓蒙: 上・4>

그러나 오늘날 強力한 改新波의 影響에 「드르」語辭는 거의 消滅 狀態에 있으며, 그 反面 共通語 「들」이 優勢하여감은 勿論이다. 그래서 이 「드르」語辭는 地名 接尾辭로서 全島에 高루 分布되어 있는데, 地名接尾辭로서의 「~드르」는 이 「드르」語辭의 元義와는 無關하게 單純한 部落 乃至 里, 洞에 對應되는 地名接尾辭化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 그 地名例를 들어 본다.

- 정드르 (濟州市 龍潭洞)
- 도련드르 (濟州市 道連洞)
- 너븐드르 (濟州市 老衡洞 廣坪里)
- 뫼드르 (西歸邑 吐坪里)
- 뫼드르 (中文面 上貌里)
- 난드르 (安德面 大坪里)

백드르 (表善面 城邑里)

알머드르 ( " " )

그러나 위 地名들은 傳來하는 俗名으로 近者에 와서 行政上 必要에 依해서 漢字 名義로써 俗傳 地名을 代替하는 바람에 傳來의 地名은 거의 亡却되어가는 趨勢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地名을 採掘, 採集하고 記錄하여두는 作業의 時急함을 切感한다.

그러면 「野原」의 뜻을 가진 普通名詞로서의 「드르」 語辭가 部落 乃至 里, 洞에 對應되는 單純한 地名 接尾辭化하게 된 經路는 아마 이러하리라고 생각된다.

땅(地)은 人間 生活의 場으로서 人間의 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은 이들 各地境間의 區分과 分別이 우선 必要하게 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드르」와 같이 많은 野原名이 命名되어 나왔을 것이다. 또 「○○드르」로 呼稱되는 그 野原에 사람이 入住定着케 되어, 漸次 家戶가 增加되어 여기에 하나의 聚落이 形成됨에 따라, 그 野原名이던 「○○드르」는 마침내 固有한 部落名으로 使用하게 된 것이라고 推測되며, 이렇게 해서 「드르」(野) 語辭는 單純한 地名接尾辭化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곧 우리 社會의 發展 過程 即 地形의 稱號와 人間 部落과의 區別을 모르던 時代에서 부터 人間의 集團의 社會에 대한 認識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르는 獨立된 名詞를 要求하게 되는 現象을 보여 주는 한 例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本島의 이 「~드르」型 地名이 歷史적으로 보아 過去의 國語 地名과 어떠한 關聯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考察하여 본다. 여기에 대해서 文獻上 記錄을 찾아 보면

馬靈縣, 本百濟馬突縣〔三國史記：卷三十六〕

馬突縣, 本百濟馬突一云馬珍, 一云馬等良〔麗史：卷五十七〕

위 文獻의 記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馬突, 馬等良」 등은 共に 百濟의 地名으로 「突, 等良」은 「들, 드르」(野)의 漢字 借記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梁柱東博士는 「馬等良」의 「馬」는 「南」의 古訓 「마」요 「等良」은 「드르」(野)로 即 「馬等良=마드르=南野」의 義로 解釋하고 있다.<sup>4)</sup>

여기서 볼 때 이 「드르」型 地名은 일찌기 百濟 時代부터도 있어 오던 것으로 推測이 되며, 이것은 또 오늘날 本島 地名의 「~드르」와도 相互 關聯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드르」系 地名이 百濟 地名의 한 特徵인 國號인 「百濟」에서 보아도 짐작이 간다.

4) 梁柱東, Op. cit., p.5.

「百濟」를 日本書紀에는 「구다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日本人이 當時의 우리말을 들은대로 記錄한 것일 것이다. 「구다라」는 아마도 「크드르」即 「큰들」(大野)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니, 처음에는 野原名이었던 것이 여기에 聚落이 形成됨에 따라 部落名이 되고 이 部落이 漸次 擴張 發展되어 一個 國家를 形成하게 됨에 따라서 國號로까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比較的 觀點에서 볼 때, Tungus系 語에 다음과 같은 語彙가 있음은 매우 注目할만 하다고 하겠다.

tala	(野原)	蒙古語
taoli	(荒蕪地)	滿洲語

方言의 「드르」語辭는 15世紀 國語의 「드르」와 連結되는 것이며, 『또 이 「드르」語辭의 根源은 일찌기 Tungus系 語에서부터 由來된 것으로 推測된다. 그래서 이 「드르」語辭는 韓半島를 거쳐 日本에까지 流入된 것이라고 생각되니, 오늘날 日本 地名等에 分布되어 있는 이 「드르」型 地名도 일찌기 大陸 方面에서부터 由來되었음을 日本 學者들도 是認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 3. ~개

「~개」型 地名은 全島 一圓에 高루 分布되어 있으며, 그 分布 狀態는 主로 海岸線을 中心으로하여 海岸 乃至 浦邊 地帶가 된다.

그리고 「~개」型 地名은 그 大部分이 漢字로는 「浦」로 對譯 使用되고 있다.

그런데 陸地部 地名에도 「~개」型 地名이 많이 分布되어 있으나 「~개」가 반드시 「浦」에 對應되는 것은 아니고, 內陸 地方에도 「~개」 地名이 있어 「개」는 「浦」보다도 「洞·里」等を 뜻하는 單純한 地名 接尾辭化하고 말았음에 대하여, 本島의 境遇 이 「~개」地名의 分布는 主로 海岸 地帶요, 中山村等의 內陸 地方에는 「~개」型 地名을 찾아 볼 수 없음이 그 特徵이다. 다음에 本島에서의 地名例를 들어 본다.

건들개	(山地浦)	濟州市 建入洞
설개		濟州市 三陽洞
가물개		〃
백개	(梨湖里)	濟州市 梨湖洞

5) 饒味完二, 「日本の地名」(東京:角川新書, 1964), p.16.

뫼개	(北村里)	朝天面 北村里
엷개	(新興里)	朝天面 新興里
우목개	(牛目洞)	舊左面 演坪里
어등개	(漁登浦)	舊左面 杏源里
큰 개	(大浦)	城山面 新興里
설릉개	(漢池洞)	表善面 表善里
당 개	(堂浦)	”
보말개	(保末洞)	南元面 新興里
펼 개	(泰興里)	南元 面泰興里
부등개	(漢南里)	南元面 漢南里
불래낭개	(甫木里)	西歸邑 甫木里
수전개	(水戰浦)	西歸邑 好近里
큰개	(大浦里)	中文面 大浦里
당개	(唐浦)	安德面 大坪里
모실개	(慕瑟浦)	大靜邑 慕瑟浦
넙은개	(廣浦)	翰京面 高山里
한개	(金藤里)	翰京面 今藤里
널개	(板浦里)	翰京面 板浦里
자물개	(洙源里)	翰林邑 洙源里
독개	(瓮浦里)	翰林邑 瓮浦里
모살개	(錦城里)	涯月面 錦城里

위 地名例에서 보면 「개」는 大部分 漢字「浦」로 對譯되고 있어, 「浦」는 「개」와 對應됨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는 모두가 「浦」에 對應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洞·里·村」等으로 換言하면 「개」는 海邊 乃至 浦邊 地帶에 位置한 村落뿐만 아니라 그 周邊一帶에 分布되어 있는 村落까지도 指稱하게 되어 여기에 「개」는 單純한 地名接尾辭로 化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國語에서 「개」 語辭는 일적부터 「浦」의 訓으로 地名에 많이 使用되어 왔음을 文獻上에 나타나는 古地名例에서 보아서도 잘 알수가 있다.

蘭浦縣 本內浦縣

[三國史記：卷三十四]

合浦縣 本骨浦縣

[“ ” “ ” ]:



密津縣	本推浦縣	[ " " ]
東津縣	本栗浦縣	[ " " ]
金浦縣	本高句麗驛浦縣	[三國史記：卷三十五]
藍浦縣	本百濟寺浦縣	[三國史記：卷三十六]
赤島縣	本百濟所比浦縣	[ " " ]
絲浦	今蔚州谷浦也	[ 三國遺事：卷三 ]
合浦	(합개)	[龍歌：上・115]
金谷浦	(김곡개)	[龍歌：上・168]
助邑浦	(조읍개)	[龍歌：上 168]
蛇浦	(비양개)	[龍歌：上・242]
三田浦	(삼밭개)	[龍歌： ]
照浦山	(졸애山)	[龍歌：下 ]

위 地名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浦」는 「개」와 對應되는 意味로 일찍부터 使用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이 「浦」가 어떠한 場所를 指稱하였는가에 對해서는 明白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河野六郎氏は 原來 「개」는 「가라」[ka-ra]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다. 即 「가라」는 音變에 依하여 「개」로 된 것이며, 이것은 모리>뫼(山), 나리>내(川) 등의 語例에서 보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原來 「개」는 江(特히 落東江)을 指稱하였던 것으로 推測되며, 이것이 後에 그 語意가 轉變되어 ‘江과 海가 맞닿는 곳’ 또는 ‘浦邊’을 指稱하게 되었은 것이라고 하였다.<sup>6)</sup>

現代國語에서 「개」는 自立名詞로서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의 뜻을 가진다. 方言에서는 갯갯(海邊) 갯물(海水) 갯고도리(海草의 一種) 갯촌(浦村)… 등의 語例들이 있어 原語民의 談話에서 實現되기는하나 그 頻度는 極히 微小하다. 이와 같이 方言에서 「개」는 大体로 「海」乃至 「海岸」의 뜻으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地名에서 「개」 語辭는 「海」乃至 「海岸」의 뜻보다는 海岸地帶 乃至 그 周邊에 分布되어 있는 「洞・里」를 指稱하는 單純한 地名接尾辭로 化하고 全島 一圓에 널리 分布되어 있으나, 漢字 地名에 壓倒되어 漸次 消滅되어가는 趨勢에 있다.

#### 4. ~무르, ~무를

方言에서 「무르, 무를」 語辭는 自立名詞로서, 지붕이나 산 따위가 길게 등성이가 진 곳을

6) 河野六郎, Op. cit., pp-133.

意味하는 말로, 상막골(용마루), 산막르(산마루), 막를(旨)等の 語彙가 아직도 共時態로서 實現된다.

그래서 이 「막를」 語辭는 元來 丘陵이나 또는 稜線地帶를 指稱하거나 또는 그러한 地形을 가진 地名으로 使用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接尾辭化하여 單純한 地境名接尾辭 또는 「村, 里」등과 對應되는 地名接尾辭化하고 만 것이나, 이 「~막를」系 地名의 地形的 特徵은 亦是 丘陵 乃至 稜線地帶를 指稱하였던 것이 一般的이며, 또 比較的 山을 背景으로한 「村, 里」등에 分布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그 다음에 地名例를 들어 본다.

신산막르	濟州市 一徒洞
도령막를	濟州市 蓮洞境
큰막를	濟州市 我羅境
신막를	濟州市 梧登境
동남막르 (東南旨)	城山面 古城里
연춘이막르 (蓮春旨)	城山面 古城里
상빛막르 (上樞旨)	表善面 加時里
사당막르 (砂塘旨)	表善面 兎山里
가마귀막르 (下禮里)	南元面 下禮里
앞막르 (前旨洞)	大靜邑 武陵里境
당막를 (楮旨里)	翰京面 楮旨里

위 地名例에서 注目할만한 事實은 오늘날 標準語系에서는 이미 「마루」로 語形이 變하였음에 대하여, 本島 方言에서는 「막르, 막를」이 變形으로 共時態로서 共存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語辭의 李朝 初期 語形은 「막를」이며, 「막르」의 古代形은 「막를」이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本島 方言의 「막를」은 分明 李朝語 以前の 「막를」과 關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나와, 이에 대해서는 李崇寧博士도 일찌기 言及한 바와 같이<sup>7)</sup> 本島 方言에 이 「막르, 막를」의 變形이 存在한다는 것은 李朝語 以前の 古代語 再構에도 하나의 暗示를 던져 주는 것으로, 方言이 國語의 史的 研究에 크게 寄與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前掲 地名例에서 볼 때, 地名接尾辭 「막르, 막를」은 漢字로는 主로 「旨」字로 對譯되고 있는데, 國語에서 「모로, 모르, 모리」는 元來 山嶺의 뜻으로 일찍부터 「旨」字로 對譯하여 使用하였음을 古文獻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7) 李崇寧, 「國語學論攷」(서울: 東洋出版社, 1960), p. 228.

竹旨及伐山郡	〔三國史記：卷三十二〕
伐知旨	〔三國遺事：卷一〕
北龜旨	〔三國遺事：卷二〕

그리고 現代地名에서 前掲한 本島 地名例 外에 陸地部 地名에서도 그 例가 散見된다.

長旨里	(京畿廣州)	진마루
禾旨洞	(全南順天)	숫마루
中旨洞	(慶南仁洞)	중마루
晚旨洞	(忠北懷仁)	만마루
旨老洞	(江原蔚珍)	마룻골

國語에서 「山」의 古語에는 여러가지 形態가 있었음은 古文献을 通해서 볼 때 잘 알 수가 있다. 卽 通典의 健牟羅의 牟羅[mu-ra]는 「城」의 義이나, 元來는 「山」을 意味하였으며, 三國誌 東夷傳의 馬韓 國名의 牟盧도 같은 말이며, 또 高句麗 好太王碑에 보이는 模盧는 [mo-ro]일 것이며, 魏志의 馬韓 國名의 莫盧도 [mo-ro]일 것이다. 卽 「山」의 古語로는 일찍부터 [moro, mori, mura, mure] 등으로 互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山」을 이르는 이 語辭는 또 百濟 古記에 依한 古訓을 그대로 日本에까지 傳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니, 日本書紀 百濟 地名에는 山嶺을 牟禮[mure]로 記錄되고 있으며, 또 日本書紀 通釋에도

〔牙例蓋韓語 八雲御鈔云 牟禮山名 今朝鮮語云 毛惠〕

라고 記錄되고 있어 山嶺을 意味하는 百濟語 「무리, 무릭」 語辭가 日本에까지 傳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그 後 日本에서도 山嶺을 「牟禮」[mure]라고 하였음을 日本書紀等 古記에서 보아 잘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韓人이 居住하고 있는 곳이면 거기 있는 山을 韓人의 「무래」라 呼稱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sup>8)</sup> 이와 같이 國語에서 「山」을 古語로 「무래, 무릭」라고 呼稱되어 왔음은 日本書紀의 百濟의 地名 등에서 보아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日本 地名에서도 「山」을 意味하였던 [mure]系의 地名이 高牟禮, 角牟禮, 梅牟禮 等과 같이 남겨져 있다

8) 中島利一郎, 「日本地名學研究」(京都: 日本地名學研究所, 1960), p.133.

고 한다.<sup>9)</sup>

그런데 이 「마르, 마리」 語辭는 또 일찍부터 「宗, 上, 首」의 義를 가졌던 것으로 人名, 官職名이로도 많이 使用되었으며, 特히 人名의 美稱으로 上古 以來로 使用된 듯하니, 三國史記 等の 人名에 毛末(朴堤上), 牛頭(張首), 苔宗(異斯夫), 荒宗(居柒夫), 永宗等の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日本에까지 傳播되어 日本語에서도 男子의 美稱으로 使用되어 왔으며, 現今에도 日本 人名에는 清麻呂, 秀麻呂等과 같이 「마루, 마로」가 남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마루」는 比旦, 人名뿐만 아니라, 一般商號, 屋號, 器物名等에도 「丸」[maru]를 通用하게 되었으며, 特히 船舶名에는 全部 「〇〇丸」라고 해서 「丸」[maru]를 使用하고 있음도 그 根源은 「마르」(宗, 上, 頭)에서 由來된이라고 할 것이다 .

이 「마르, 마루」의 語源은 分明치 않으나, 滿洲語에도 오늘날 [maru](棟)란 語彙가 있으니, 이는 相互關聯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國語에서 「마르, 마루」는 일찌기 「宗, 上, 頭」의 義를 가진 말로서 이 말은 또 「山嶺」의 義를 派生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山」을 意味하는 「모리」는 第二音節의 르字音이 脫落 縮約되어 「뫼」로 되었음에 대해서, 「산등성이」, 「棟」等を 이르는 語形으로는 「산마루」, 「용마루」等과 같이 오늘날도 「마루」 語形이 그양 維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本島 地名에 있어서는 「마르, 마를」의 變形의 古形態가 共存하고 있으며, 「마르, 마를」은 元來 山嶺 乃至 丘陵 地帶를 意味하는 語辭로서 이와 같은 地名의 呼稱에 使用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單純한 「村.里」에 對應되는 地名接尾辭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 5. ~다라, ~다리

本島 地名에는 「~다라」 또는 「~다리」가 接尾하는 地名이 꽤 많이 分布되고 있다. 이래 그 地名例를 提示하여 본다.

인다라	(仁多羅)	濟州市 我羅洞
간다락	(看月洞)	“ “
다라쿿	(月坪洞)	“ 月坪洞
논다리	(飛月洞)	“ 蓮洞
마리	(橋來里)	朝天面 橋來里
고븐다리	(曲月洞)	“ 大屹里

9) 前掲書, p.5.

방충다리	舊左面 濱坪里
종다리	〃 終達里
색다리	〃 穢達里
잔다리	安德面 東廣里
다리물 (雀伊水)	大靜邑 九億里
이다리 (伊橋洞)	〃 上臺里
붉은다리 (明達洞)	〃 日果里
용산다리 (龍山達伊)	翰京面 造水里
한다리 (多橋洞)	翰林邑 歸德里

以上 舉例한 바는 「~다라, ~다리」가 接尾하는 部落名들이다. 이 語辭는 方言에서 自立名詞로는 使用되지 않으며, 위 地名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만 「里, 洞」에 對應되는 單純한 地名接尾辭일뿐이다.

이 「~다라」型 地名이 갖는 村落의 地形의 特徵에 대해서는 分明치는 않으나 元來는 「曠野 平野地」를 이르는 말이 아니었던가 推測되며, 滿洲語와 蒙古語에 田, 耕地를 意味하는 말로 [Tala, Tarla]가 있다고 하니 여기서 由來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또 이 「~다라」型 地名은 濟州島의 古名稱인 「耽羅」와도 어떠한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닐까 推測을 하여 본다. 濟州島의 古名稱인 「耽羅, 耽牟羅, 屯羅, 度羅」 등의 解讀 및 그 語源에 대해서는 일찌기 여러 說이 있고 또 充分히 論議되어 온 터이나, 일찌기 日本人들은 耽稱人은 「도라」人이라 呼稱하였다고 하니 이것도 全然 根據없는 말은 아닐 것이며, 「耽羅」의 解讀에도 參考가 될 것이다. 또 日本人들은 「巨濟島」를 「구다라」島라고 呼稱하였으니,<sup>10)</sup> 여기서 「濟」字는 「다라」에 借用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耽羅」는 高麗 忠烈王 二十二年에 「濟州」로 改名하였는데 이 「濟州」의 「濟」字도 「다라」의 借字일 것이다. 「州」는 郡, 邑, 府와 같이 어느 地方에나 붙이는 普通語詞였던 것이라고 볼 것이니, 新羅 景德王의 地名變更時 州는 모두 一字形으로 고쳤으며, 郡, 縣은 二字名으로 고쳤으니 全州, 光州, 羅州, 晉州, 慶州... 등과 같이 濟州의 固有名詞는 「濟」字 하나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本島의 古名稱 「耽羅」나 現名稱인 「濟州」는 아마 다 같이 그 固有名인 「다라」의 漢字 借記가 아닐까 한다. 現在 本島에는 「~다라, ~다리」系 地名이 分布되어 있음과 또 日本人들이 일찌기 本島를 「다라, 도라」로 呼稱하였음은 決코 偶然한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 「다라」는 本島를 呼稱하던 固有名이었으리라고 推測되며, 이것이 또 一般地名으로 擴大 使用케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0) 前掲書, p. 776.

또 이 「다라」系 地名은 그 分布 狀態를 볼 때 우리나라 中部 以北 地方에는 별로 없으며, 日本에는 南部 地方에 주로 分布되어 있어 「多羅, 多良」등의 地名語가 散見되니, 이것은 本島의 「~다라」 地名語와의 關聯性을 考憲하여 불만한 것이 아닐까 한다. 卽 이 地名語는 우리나라 南部와 大韓海峽의 兩岸으로부터 日本의 南部地方까지 그 分布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南方地方 卽 琉球, 台灣에서는 勿論, 이말은 더 南下해서 킬버트島에 이르고 또 뉴질랜드까지도 達한다고 하니,<sup>11)</sup> 이것은 南方民族과의 關係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 地名은 南方語 系統에서부터 由來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6. ~도

「~도」系 地名은 아직 充分한 資料를 얻지 못하여, 그 分布面에 있어서나 또는 그 起源에 있어서도 確言키 어려운 좀 特異한 存在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도」가 하나의 地名接尾辭로 類型化하는 데는 別로 異論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이 「~도」型 地名例를 들어 본다.

고분갓도	濟州市	我羅洞境
정도	〃	〃
큰곳도	舊左面	德天里境
산넛도	西歸邑	上孝里境
큰무덤도	翰京面	高山里境
블래남도	表善面	城邑里境
빌래넛도	〃	〃

「~도」接 地名이 갖는 地形的 環境의 特徵은 大概의 境遇 通路, 入口 및 건널목 等이며, 여기에 位置하는 地境名에는 「흔히 「○○도」로 呼稱되었다.

方言에서 이 「도」 語詞는 原語民의 談話에서 共時態로 實現되고 있으며, 大概 「通路, 건널목, 出入口」 등의 뜻으로 쓰인다.

도에 앞지 말라 (通路에 앞지 말라)

도막은 발 (通路가 막힌 발)

11) 饒味完二, Op. cit., p. 63.

도를 트다 (通路를 열다)

넷도 (내의 건널목)

以上 例文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도」 語詞는 原來 自立名詞로서 그 地勢環境의 特徵에 따라 「○○도」와 같이 地境名, 地名이 命名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接尾辭化하여 地境 또는 里, 村에 對應되는 單純한 地名接尾辭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이 「도」 語詞의 由來에 대해서 文獻의 記錄을 살펴 보면 三國史記(卷四十四)에 「旃檀梁城門名. 加羅謂門爲梁云」이라고 하였으니, 이 記錄에서 보면 加羅語로 「門」을 「梁」이라 한다고 하니, 이 「梁」의 解讀에 대해서는 三國遺事(卷一辰韓條)에 「云沙涿. 漸涿 等(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라고 하였으니, 이 記錄에서 볼 때, 「梁」은 그 音이 「道」와 같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本島方言인 「도」와 거의 一致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며, 以上 古記錄에서 볼 때, 本島方言 「도」는 일찌기 加羅語에서부터 由來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李朝 文獻語에서도 그 用例를 찾아 볼 수가 없는 이 貴重한 「도」 語詞가 本島方言 特히 한개의 地名接尾辭에 殘存하여 있음은 國語史의으로도 매우 意義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日本語에서 [to]를 「戶, 戶口, 門」의 意味로 使用되니, 이것은 本島方言 語詞 「도」와 形態上으로서나 語意上으로도 거의 一致되는 것이며, 이것은 偶然의 一致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卽 여기에 民族의 移動에 따르는 言語의 交流 關係를 豫想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7. ~코지

「코지」 語辭는 地名에 널리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 개의 地名接尾辭로 認定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코지」系 地名은 一般的으로 海岸 地帶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다.

졸락코지	(濟州市 健入洞)
섭지코지	(城山面 新陽里)
광대코지	(中文面 河源里境)
한대코지	(涯月面 涯月里境)
볼락코지	(大靜邑 加波島)
개염주리코지	( " " )
매부리코지	( " " )

## 가장코지 (大靜邑 加波里)

以上 地名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지」系 地名은 文化的 環境 要因에 依한 것이 아니라, 自然地理的 環境의 特徵에 依해서 稱名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地勢의 特徵으로서는 주로 海岸地帶에 分布되어 있는데, 大概 陸地가 바다 쪽으로 突出한 尖端 部分에 이 地名이 많이 分布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方言에서 이 語詞는 地名接尾辭로서가 아니라 自立名詞로도 原語民間에는 使用되고 있다.

- 북름코지 (바람 받이)  
 앞코지 (앞의 突出部)  
 발코지 (발의 尖端部)

等の 語例가 談話에서 實現됨을 볼 수 있는데, 方言에서 「코지」 語詞는 事物의 突出部, 尖端部의 義로 쓰임이 一般的이다. 그래서 地形에 있어서도 뾰족 내민 곳을 「○○코지」라고 稱名하게 되었을 것이며, 내중에는 하나의 接尾辭로 化하여 單純한 「里, 洞」에 對應하는 地名接尾辭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코지」 語辭는 어에서 由來되는 것일까? 訓民正音 以後의 李朝 文獻에서도 별로 그 用例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 語源 및 起源에 對해서는 分明치 않다. 三國遺事(卷四)에 보면 「嘉瑟岬, 或作加西. 又嘉栖. 皆方言也. 岬俗云古尸。」라는 記錄이 있고, 또 三國史記(卷三十六)에는 「岬城郡 本百濟 古尸伊縣」이라는 記錄이 있으니, 이 記錄으로 보아서 「嘉瑟, 加西, 古尸, 古尸伊」等은 모두 「岬」의 뜻인 固有語의 漢字 借記임을 알겠다. 上記文獻에서 「古尸」는 「岬」을 이르는 俗言이라고 하였으니 「古尸」는 本島方言 「코지」에 該當되는 語詞가 아닐까 推定되나, 이의 讀音이 問題겠다. 梁柱東博士는 이를 모두 「ㄱ의」 音轉 「것, 곳, 갓」에 該當한다고 하였다.<sup>12)</sup>

그러나 筆者의 管見으로는 「古尸, 嘉瑟, 古尸伊」는 二音節로서 「고시, 고지」로도 解讀이 可能하지 않을까 推測을 하여 본다. 그래서 이 「고지」의 第一音節인 「고」의 「ㄱ」子音이 有氣音으로 變하였으며, 또 여기에 接尾辭 「지」가 添加된 것이 本島方言形인 「코지」 語詞가 아닐까 推測을 하여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코지」 語辭의 語源은 自명한 것이니, 그것은 人間의 身體名인 「코(鼻)」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言語는 그 發生的으로 보아, 原來 抽象語는 具象語에서부터

12) 梁柱東, Op. cit., p. 85.



派生하였다는 言語 一般的인 理論에서 볼 때 「코」(鼻)는 身體語로서 具象語이며, 「코」가 갖는 形態的, 機能的 特徵이 이와 類似한 다른 事物間에 類似 心理가 胎動되어 聯想作用이 일어나 이 身體語가 이와 形態的으로 비슷한 他事物의 名義에 轉移된 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卽 「코」의 形態的 特徵은 顔面에서 突出되어 있으므로 이와 類似한 地形에 대해서도 「○○코지」라고 稱名하게 되었을 것인즉 이때에 「~지」는 接尾辭로서 「코」에 接尾되어 形成된 것이라고 보며, 이렇게 해서 形成된 것이 本島의 地名接尾辭「코지」語辭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本島의 地名接尾辭「~코지」形과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地名 語辭를 日本 地名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卽 日本 地名에 「久慈, 狗子, 久師, 具志」 등의 地名이 있는데 그 音은 [kusi] 또는 [kuzi]로서 日本 學者들은 이 地名 語詞의 語意를 砂丘나 小丘 등이 길게 뻗어 나간 地形語라고 解釋하고 있다.<sup>13)</sup> 여기서 本島의 地名接尾辭「~코지」를 日本의 地名 語詞와 比較하여 볼 때 語形上으로도 語意上으로도 거의 合致되는 것이라고 보며, 이것은 決코 偶然의 一致가 아니라, 이는 過去 民族의 移動 乃至 交流等 兩民族間의 密接한 關聯性을 示唆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II

以上 本島의 地名接尾辭中에서 그 一部를 對象으로 하여, 그 命名의 基盤 및 背景과 또 言語學的 側面에서 形態, 意味, 語源等에 대해서 考察하여 본 바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대해서 結論을 지어 볼 수 있겠다.

1. 本島의 地名은 그 命名의 基盤이 文化的 環境 要因보다는 自然地理的 環境의 特徵에 依함이 濃厚함을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本島의 自然地勢가 山岳, 丘陵, 海岸線, 野原等 地形의 個性이 매우 뚜렷하고 視覺的이며, 또한 固定性이 있어서 地名으로 命名되기에 가장 容易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地形名이 發展되어 바로 村落名, 部落名이 되었다.

2. 本島의 地名接尾辭中에는 甚한 固着性으로 因하여, 아직도 많은 言語의 底層이 比較的 外來語의 侵蝕을 받음이 없이 保存되어 있어, 國語의 通時的 研究에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

3. 地名接尾辭「가름」等を 통해서 볼 때 本島民은 原始 氏族社會를 거친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도 母系中心의 氏族社會가 아니었던가 推測된다.

13) 鏡味完二編, 「日本地名小辭典」(東京:角川書店, 1964),

4. 一部 地名 資料만 가지고서 云謂하는 것은 大端히 危險한 일이나, 이 地名의 考察을 通해 서 볼 때 本島 方言의 系統 推定에 많은 暗示를 준다. 本島 方言이 大略 南方系 國語와 北方系 國語의 複合的 形成위에 一部 流民의 外來的 要素가 附加되어 發達을 實現한 것이라고 推定 되나, 이에는 앞으로 言語學的인 考究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俗傳하여 오던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漢字 地名에 壓倒되어 急速히 消滅되어 가는 趨勢에 있어, 이 固有地名의 發掘, 調査, 採集 및 記錄하여 두는 作業이 時急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地名 資料를 分析 分類하고 言語學的인 諸 問題에 對하여 体系的인 研究가 이루어질 것을 期待한다.

— Summary —

## The Place Names of Jeju Island

— With Emphasis on the Suffix of the Place Names —

*Kim Hong-sik*

The place names are rare cultural assets and are like a fossil that suggests the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an age. It is a cultural science much devoted to the history, geography and folklore.

Especially, the relation of the place name and the language is quite close. The place name is stronger in solidity rather than the dialect. It is expected that the place name has an underlying form of a unique language of a nation without the relative intrusion from the foreign language. Thus, in the study of dialects, the use of the place names is very important, the writer thinks.

In this sense, this paper studies the foundation, background, form, meaning and stymology of the name from the linguistic point of view with an emphasis on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Jeju Do. This study is also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a study on the dialects of Jeju Do.

As the result of the study of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Jeju Do, the foundation of the place names of Jeju Do has a factor of the natural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than the cultural one.

The suffix of the place names of Jeju Do has an old stratum of many languages because of the strong solidity. Not only is it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good references of the diachronic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it gives a lot of suggestions to the systematic survey of the dialects of Jeju Do. In the near future the education, analysis, classification of the suffix of the place names are linguistically studied,